

# 사유지 보상 71%…광주 민간공원 조성 사업 순조

생활권 재정·민간공원 24개 사업 속도…화정근린공원 3월 준공  
737억 투입 사유지 추가 매입…중앙공원 1지구도 선분양 추진

광주시민에게 쉽고 힐링 공간을 선사하기 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원시설 지정 이후 2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곳을 대상으로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공원 조성사업' (15개소)과 민간자본을 들여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소)으로 구분해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공원 조성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광주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 토지를 보상·조성하는 공원 (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본촌, 신용, 황룡강대상, 영산강대상, 화정, 운천, 송정) 15곳이 대상이다. 시는 2017년부터 총 사업비 4867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보상 등 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원 12곳의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고, 전체 사유지 면적의 71%를 매입하는 등 토지 보상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737억원을 추가 투입해 보상 대상 사유지 96만7000㎡ 중 10만4000㎡를 매입할 예정이며, 재정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영산강대상근린공원과 송정근린공원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영산강대상근린공원의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고, 송정근린공원은 상반기 중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보상협의회 구성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매입 절차가 끝나면 총 보상 규모만 79만7000㎡로, 사유지의 83%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첫 번째로 조성한 신촌근린공원에 이어 오는 3월 화정근린공원도 준공한다. 화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옛 국군광주병원이 합평군으로 이전하면서 2007년 공원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또 보상은 완료했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발산공원과 본촌공원 내 불법 건축물 및 지장물을 철거해 불량 경관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불법 경작지와 훼손지에 초화류 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착공 때까지 주민참여 방식의 마을 공동체 정

원으로 유지 관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내년까지 남은 재정공원 내 사유지 토지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미조성 공원에 대한 장기적 개발 방안 등도 마련해 우선순위에 따른 공원 조성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민간투자로 진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각종 악재를 딛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사업성이 불투명한 '후분양' 방식에 발목 잡혀 있던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아파트 등) 시설 사업에 대해 비용 절감 효과 등이 높은 '선분양 방식'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는 애초 '후분양' 사업을 계획했으나 풍암저수지 민원 등 여러 이유로 사업 일정이 수년간 지연되는 사이 전 세계를 뒤덮은 고금리 여파와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태 등이 겹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선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 2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곳 가운데 일부를 비공원 면적으로 설정해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광주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며, 광주시는 2017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10개 사업자·전체 사업 면적 789만 7000㎡)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사업 규모가 가장 큰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 5027㎡ 부지 내에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을 건축하는 광주 최대 공원 프로젝트다.

김준영 광주시 생활력추진본부장은 "재정공원 조성사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24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 마무리되면, 시민들이 집과 가까운 생활권역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쉽고 힐링의 공원 도시 광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8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이 공원으로 새롭게 단장되고 있다. 5·18 사적지 제23호로, 병원 건물과 함께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조성될 이 공원은 오는 3월 준공해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부지 24곳에 대해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강화·유기농 육성

전남도-시·군 간담회…농정혁신 방안 등 현안 공동 대응

전남도가 올해 농정 주요 정책 목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 쌀 적정 생산 대책 마련, 농업정책 보험 가입률 향상 등으로 정하고 시·군과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6일 도청 정철실에서 전남도-시·군 농정혁신방안 마련 간담회를 열어 농정 역점시책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국·과장, 22개 시·군 농정업무 주무과장 30명이 참석했다. 시군

유동·축산 분야 26명의 과장 등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군은 지역 특성을 살린 우수 농정시책을 발표하고 성과와 함께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시·군별 우수 시책은 ▲여수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 사업 ▲나주시 '농촌 빈집 재생 지원' 사업 ▲보성군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 사업 ▲강진군 '시설하우스 화재 제로(Zero)화 추진' ▲함평군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사업 ▲영광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중대형 맞춤형농기계 지원' 사업 ▲해남군 '배추 작목전환 시범사업

성공 안착' 등이 거론됐다.

시·군은 상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개발에 나서기로 했으며, 전남도는 시·군 우수사례 사업성 검토 후 시책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농업인·농업인단체 간 소통을 강화,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생활 밀착형 농정과제를 발굴해 규모화된 핵심과제 선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 기상재해 등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한 결과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전남 농업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스마트화로 혁신해 첨단농업으로 가야한다.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농도 전남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

6억3000만달러 달성 전년비 13% 증가…수출 상담·판촉 등 효과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식품이 고금리, 고물가 등 악재 속에서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보였다. 전남 농수산물식품수출액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6억3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수출액 1위 품목은 김으로, 전체 수출액의 39.4%에 해당하는 2억4900만 달러가 선적돼 해외로 나갔다.

이어 전복(4900만 달러·7.7%), 분유(2900만 달러·4.6%), 유자차(2500만 달러·4%), 쌀(2400만 달러·3.8%), 배(2200만 달러·3.5%) 순이었다. 최근 냉동 김밥 등 소위 케이(K)-푸드의 열풍과 함께 전남 쌀 수출도 늘었다. 2022년 1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전남 쌀 수출액은 2400만 달러로 무려 104% 증가했다.

국가별 농수산물 수출은 일본(25.9%), 미국(18.3%), 중국(16.3%), 대만(6.4%), 러시아(5.7%)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시장개척 수출 상담회, 해외 판촉행사,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등 10개국 24개소 해외 상설판매장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해 농수산물 수출 영토를 확장한 점도 한몫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세계인의 입맛을 공략한 전남 푸드의 수출 기회 요인 확대, 고부가가치 수출 유망품목 육성과 시장 다변화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목포대·순천대 공동 의대 신설 적극 지원”

전남도의회, 다음달 1일 국립 의과대 유치 조례안 처리 방침

전남도의회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공동 의대 신설 방침과 관련,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총동원해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환영했다.

도의회는 28일 “공동 의대 신설 방침은 전남을 대표하는 두 대학의 양보와 통합으로 성사된 결정으로 전남권 국립 의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이 빛어낸 산물”이라며 “도의회

는 국립 의과대학 신설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제22대 총선 여야 공약에 전남권 의대 신설이 포함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다음달 1일 제 377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